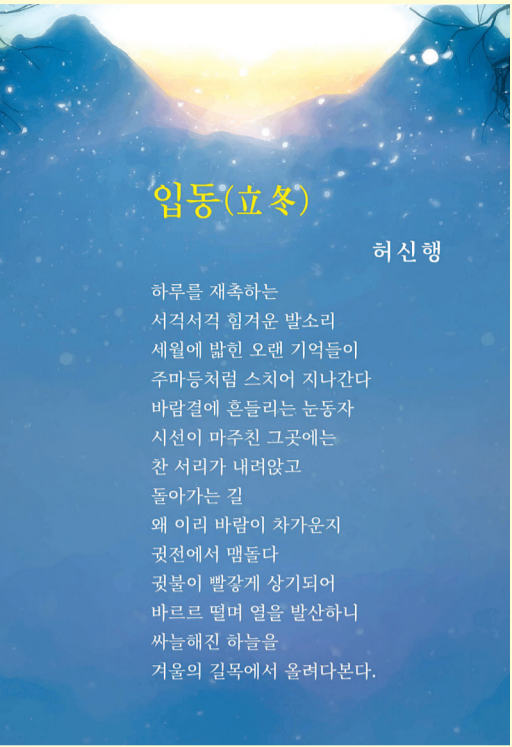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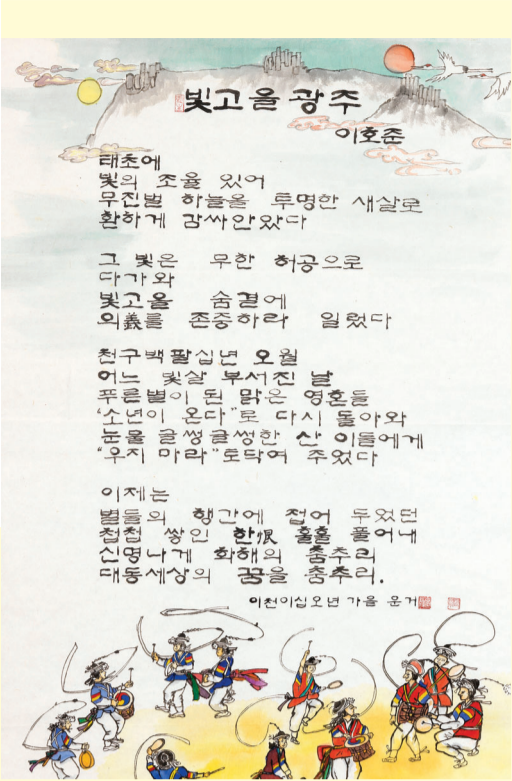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기념 시화전  
광주시화협회·도서출판 앤바이올렛  
12~28일 전일빌딩245...77명 참여

# ‘詩’ 위로가 되다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쾌거였다.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이정표이자, 향후 한국문학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었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동안 타 장르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K-문학의 지평을 확장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K-한류에 K-문학이 가세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자장이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하는 시화전이 마



련돼 눈길을 끈다. 12일~28일 전일빌딩 245이며 주제는 ‘시(詩) 위로가 되다’. (개막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광주시화협회와 도서출판 앤바이올렛이 주최하고 한글날100주년기념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한다. 대회를 맡은 이호준 시인이자 한국화가는 “2004년 한강 작가는 섬세하면서도 깊은 인간성의 통찰로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며 “그 감동의 여운을 안고 광주에서 열리는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시화전은 단순한 기념의 장을 넘

어 문학과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마음을 밝히는 ‘감성의 축제’가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시화전에는 시인, 화가, 문인 등 모두 77명이 참여한다. 광주 전남 지역 시인도 27명이 참여한다. 강덕순, 강북래, 기육란, 김영순, 공난숙, 권자현, 손영란, 신명희, 오소후, 유양업, 장문자, 최기숙 등이 작품을 냈다. 한강 작가의 고향이 광주인데다 행사 장소도 광주이기 때문에 ‘빛고을’, ‘무등산’ 관련 작품들이 눈에 띈다. “태초에/ 빛의 조을 있어/ 무진별 하늘을 투명한 새살로/ 환하게 감싸안았다// 그 빛은 무한 허공으로/ 다가와/ 빛고를 숨결에 의(義)를 존중하라 일렷다// 천구백팔십년 오월/ 어느 빛살 부서진 날/ 푸른별이 된 맑은 영혼들/ ‘소년이 온다’로 다시 돌아와/ 눈물 글썽글썽한 산 이들에게/ ‘우지 마라”

토닥여 주었다// 이제는 별들의 행간에 접어 두었단/ 찻집 쌓인 안(恨) 홀홀 풀어내/ 신명나게 화해의 춤추리/ 대동세상의 꿈을 춤추리”(‘빛고을 광주’) 이호준의 ‘빛고을 광주’는 직접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이다. 빛고을에 스며든 빛이 의를 존중하리라 했지만 80년 5월, 빛살은 부서져버렸다. 그러다 ‘푸른 별이 된 맑은 영혼들’이 ‘소년이 온다’로 다시 돌아온다. 시는 신명나 화해의 춤, 대동세상의 꿈을 희원한다는 내용이다. 흥겨운 농악 그림을 배경으로 형상화된 시는 ‘빛고을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유양업 시인의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 무등을 묘사한 작품이다. 시인은 빛고을의 고운 영봉이라 칭한다. “(전략)// 눈길 닿는 곳마다/ 물결치는 그리움/ 산아마다 꽃향기 낭만 풀어/ 빈 가슴 소복이 채워

준다// 침묵의 빛으로/ 수많은 민주화 한 많은 사연 안고/ 가슴에 언어/ 나래 퍼 감싸고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한컴그룹이 후원한 제1회 한컴문학상 대상 수상자 신명희 시인의 작품도 관객을 맞는다. 개막식이 열리는 13일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 식전행사로 김미경, 기형순이 시낭송을 하고 감성밴드 연금술사, 김태훈, 안혜경이 공연을 펼친다. 유양업은 ‘신아리랑’, ‘내담의 강물’을 선사한다. 정현덕 추진위원장은 “이번 1주년 기념행사는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하며 시(詩)를 통해 국민이 위로받고 융합하는 계기가 되고 지구촌 K-문화 확산에 발맞춰 한글의 우수성과 올바른 한글 이해를 높이는 데 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또 하나의 국가폭력” 오월 어머니들 ‘1980 사북’ 만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오늘 독립영화관 상영

광주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또 하나의 아픔과 손을 맞잡는다. 오월 어머니집이 사북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을 단체로 관람하며 국가 사과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연대 행동에 나선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오는 10일 오후 4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1980 사북’〈사진〉을 상영한다. 다큐멘터리는 1980년 4월 강원 정선 사북광업소 노동자들이 저임금·어용노조에 맞서 벌인 항쟁을 기록한 작품이다. 광부들은 폭도로 돌변했고 신군부 비상계엄 체제 아래 계엄군이 투입되는 등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항쟁 이후 광부와 가족들은 고문·폭행·성고문 등 극심한 국가폭력에 노출됐고 ‘폭동’의 낙인이 지워지지 않은 채 45년을 견뎌야 했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사과도, 명예회복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영 후에는 박봉남 감독과 오월 어머니집의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주홍 작가가 관객

과 만난다. 두 사람은 사북항쟁의 기록 과정과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예술적 치유 시도 등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단체관람은 같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지닌 5·18 피해자 공동체가 사북항쟁과의 연대의 뜻을 밝힌 자리다. 5·18 관련 영화 ‘검문’의 배급사 ‘홀’의 최낙용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이상훈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 사장과 김형미 오월 어머니집 관장이 함께 준비했다. 이 이사장과 김 관장은 “이번 관람을 계기로 사북



항쟁이 정당한 노동·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모성과 자연...생명 창조의 공간

조성숙 개인전, 11일부터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

‘Mother Nature’. 만물의 어머니로 불려온 자연은 오래도록 모성과 겹쳐지며 이상화돼 왔다. 그러나 파스한 품으로 생명을 품는다는 이 이미지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화를 강요해온 권력 구조가 숨어 있다. 기후위기와 돌봄의 소진이 맞물리는 오늘날, 모성 신화는 여전히 자연과 여성에게 부과된 억압의 논리를 교묘히 재생산하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제8회 허스토리 기획전 공모전 수상작인 조성숙 개인전 ‘Mother / Earth / Care’를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에서 선보인다. 돌봄의 신화가 만들어진 오래된 서사를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는 전시다. 조 작가는 여성의 기원과 기억을 실타래처럼 풀어내며 모성과 자연을 생명 창조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전시는 ‘기원-상처-재생’의 구조로 구성된다. ‘Mother’에서는 비너스 이미지를 통해 모성 신화의 출발점을 탐구하고, ‘Earth’에서는 석고봉대로 형상화한 여성 신체 설치작품을 통해 억압받는 여성과 착취된 지구가 공유하는 고통을 시각화한다. 마지막 ‘Care’에서는 빈 동지와 나무알 등 상징적 오브제를 활용해 상실과 재생의 이야기를 펼쳐며 돌봄을 희생이 아닌 공동체적 윤리로 확장한다. 전시 첫날인 11일 오후 3시 30분에는 조 작가와 김용근 평론가, 최승애 기획자가 참여하는 연



조성숙 작 ‘빛의 연대, 우정’

계 워크숍 ‘여성과 자연의 해방 그리고 치유’가 재단 북카페 은세암에서 열린다. 시민들이 작품의 메시지를 함께 사유해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조성숙 작가는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국내의 개인전 23회, 단체전 300여 회에 참여하며 작업 세계를 확장해왔다. 현재 광주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인문학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예술을 잇는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올해의 소설에 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가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뽑혔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안녕이라 그랬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출간된 소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추천 방식은 소설 창작자이자 독자인 소설가들에게 1~5권까지 작품을 추천받아 진행했으며, 모두 95권이 목록에 올랐다. 1위에 오른 ‘안녕이라 그랬어’는 호소력과 딜레마적 물음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공간’이 놓여 있다. 김애란 작가의 이번 1위는 지난 2017년 소설집 ‘바깥은 여름’, 2024년 장편 ‘이중 하나는 거짓말’에 이어 세번째다. 그만큼 김 작가의 작품이



소설 창작자를 염으로 삼고 있는 동료 작가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2위는 상상력과 탄탄한 구성, 실험적 시도가 빛나는 구병모 작가의 ‘절창’이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모두 4권의 소설이 선택을 받았다. 정이현의 ‘노 피플존’, 이기호의 ‘명량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김혜진의 ‘오직 그녀의 것’, 성해나의 ‘흔모노’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무인도에 표류한 남한군·북한군의 ‘여덟 번째 판짓’

문화공동체 판청, 13~14일 서밋마루문예회관

한국전쟁의 한복판, 우연한 사고로 무인도에 함께 표류한 남한군과 북한군.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손을 맞잡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과연 이 고립된 섬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광주 청년 뮤지컬 단체 ‘문화공동체 판청’이 오는 13~14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총 4회에 걸쳐 서밋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 공연 ‘여덟 번째 판짓’을 선보인다. 판청이 매년 이어오고 있는 정기 기획 공연으로, 올해는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화해와 연대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다. ‘여덟 번째 판짓’은 한국전쟁 시기 우연히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남한군과 북한군이 갈등과 협력을 오가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 다. 서로를 적대하던 두 인물이 고립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되고, 함께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를 통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과정이 중심 서사를 이룬다. 비극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작품은

인간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순간을 따뜻하게 포착하며 이해와 화합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한편 판청은 2018년 광주에서 창단된 청년 뮤지컬 단체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 20~30대 청년들이 기획부터 제작, 연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며 매년 창작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비망’ 등으로 지역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다. 김규경 판청 대표는 “이번 작품은 전쟁·분단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문화공동체 판청’ 단원들의 모습.

〈판청 제공〉

인물들의 순간을 유쾌하게 풀어낸 만큼 많은 관객이 공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